

1/2/22

설교 제목: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시편 84 편 1-12 절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 (시 84:1)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 (시 84:2)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 (시 84:3)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 (시 84:4)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 (시 84:5)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 (시 84:6)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 (시 84:7)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 (시 84:8)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절관주** 신 16:16
- (시 84:9)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피 보옵소서 **절관주** 시 2:2
- (시 84:10)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 (시 84:11)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 (시 84:12)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2022 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이렇게 주의 장막에 모여 드리는 새해 첫 예배가 어찌 이리도 사랑스러운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런지 가슴이 먹먹합니다.

본시의 저자는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성경 학자들은 이 시를 가리켜 시편 150 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영혼이 여호와와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고 고백하면서 성전 처마 밑에 집을 짓고 마음껏 드나드는 참새와 제비를 한없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시 84:1)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 84:2) 내 영혼이 여호와와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 84:3)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로 성막에서 봉사하며 예배를 돕고 수종드는 일을 맡은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이 지금 성막에서 봉사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상주하며 봉사의 직임을 감당하던 고라 자손이 어찌하여 성전에 있지 못하고 도리어 성전을 사모하며 그곳에서 일하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고라 자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는 이 시가 씌여진 시대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는 남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인하여 멸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할 당시 씌여졌습니다.

고라 자손들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상주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천직인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이 바벨론에 의해 자신들이 섬기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해야 했으며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억압과 핍박 속에 사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저들은 그야말로 눈물 골짜기 곧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소명과 사명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이미 지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지날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잠 못이루는 밤을 지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본 경험이 없고 또 침상에서 울부짖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늘의 능력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된 눈물이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하는 소중한 눈물입니다.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다고 누구든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기쁨으로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본시는 누가 눈물 골짜기를 잘 통과하고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지를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시 84:5)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 산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남동쪽에는 있는 작은 산으로 이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있는 길은 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성인 남자들은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등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 때마다 제사를 지내러 오는 순례자들로 인해 이 길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마음에 있는 자입니다.

고난과 환란 가운데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만나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을 때 세상에 시온의 대로도 열리게 됩니다.

(시 84:6)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시 84:7)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눈물 골짜기는 고대 이스라엘에 실제로 존재했던 골짜기로 바카 골짜기(Valley of baca)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바카’는 히브리어로 ‘눈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 양쪽 언덕에 발삼 나무의 일종인 바카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 터널을 이루고 있는데 바카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이 사람이 흘리는 눈물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이 골짜기의 이름을 바카 골짜기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바카 골짜기는 산세가 몹시 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는 너무도 힘들어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그럼에도 순례자들은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만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골짜기에 주저앉은 사람들의 발밑에 샘이 있었답니다.

터널을 이루고 있는 바카 나뭇잎에 맺힌 이슬들이 떨어져 모여 만들어진 물 웅덩이였습니다.

그리고 힘들어 더 이상 못가겠다고 주저 앉았던 사람들이 이 샘의 물을 길어 먹고 힘을 얻어 일어났답니다.

이 눈물 골짜기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절망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은혜의 샘이 있습니다.

위로의 웅덩이가 있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 이 은혜의 샘과 위로의 웅덩이를 발견하고 그 안에 담겨진 생수를 마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눈물만 흘리고 좌절하고 낙망하여 쓰러져 있으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은혜의 샘과 위로의 웅덩이를 발견하고 그 안에 담겨진 생수를 마셔 힘을 얻고 앞으로 시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께 힘을 얻어 나아가 마침내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이라고 해서 항상 탄탄 대로는 아닙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과 가시밭 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눈물의 골짜기로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힘을 공급하시고 채우셔서 궁극적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도무지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은혜의 샘을 찾으십시오!

영의 눈을 열면 은혜의 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샘 안에 흐르는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어 눈물의 골짜기를 빠져나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다음과 같이 본시의 결론을 맺습니다.

(시 84:8)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시 84:9)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피 보옵소서

(시 84:10)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 84:11)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 84:12)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주께 의지하여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장막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 의지하여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 의지하여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는 기도 없이는 결코 통과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인생의 닫힌 문을 엽니다.

기도는 매인 것은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복을 이 땅에 임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이 닫힐 때 기도의 문이 열려져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성전을 찾아 예배를 드리는 저의 가슴은 환희 가운데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세상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Covid 19 이 온세상을 휩쓸더니 그다음 백신이 나오고 이제는 백신 패스를 만드네 마네 하면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올해 2022 년은 더욱 심하게 조여올 것이고 이후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특히 이에 저항하는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고라 자손과 같이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리워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라도 절망하거나 낙망하여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짜피 지나야 할 골짜기입니다.

절망하거나 낙망하여 주저앉기 보다는 그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는 은혜의 샘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생수를 마셔 힘을 얻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결국은 승리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된 자이기 때문입니다.